

buddhanews.com

북다 겁다 모른다 안다에 속지 말아야 해요

25면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꿔는데 어쩌어야 하나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거나 그때서야 그쪽에서 아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 여러분이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동글글 해서 마음을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 그 원심력을 생각하면서 동글글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거기에 뭐 그러한 게 있었습니까?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었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어디 좋은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절에서 천도제를 하거나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상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왜 떡을 동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리저리 않습니까? 그런데 여가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을 해 놓고 그렇게 동판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 냥 동그렇게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을 한 그릇에 이렇게 놓고 초 향을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면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가시게 굴다 하더라도 잘피지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다고 성가시게 한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 줘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려하다 이 소립니다.

자손들이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러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러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에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죽었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어고도 딱 하나는 되남더라 이런 말이예요.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붓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너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모든 게 운명이고 필연 아닌지요

질문: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운명은 없고 모든 것은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그 주인공도 태어날 때부터 저의 운명대로 이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닐까요?

답변: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짓고 산 그 차원대로, 즉 말하자면 업과 아씨의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서 몸 하나를 받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뼈,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몸 하나를 딱 받죠. 그럼 수심역 마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 한 몸 받은 데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악업이나 선업 즉, 그 의식 자체가, 업식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따라서 좋게 한 것은 좋게 받을 것이고 언짢게 한 것은 언짢게 받을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그냥 수심역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해 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잘된 것이 망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것을 고(苦)덩어리라고 이틀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실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데서 나오는

데에 따라 되뇌라 이거야. 자주 카세트 얘기 했죠. 카세트에 담긴 말도 내가 지금 또 집어넣으면 앞서 놓은 거는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져서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그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나온 자리에서 되놓는다면 그 카세트에 넣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모든 걸,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것들을 넣지 마시고, 팔자 운명이라는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냐?'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아, 그러하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과거에 지은 것이지 어떠한 물질이 아니예요. 자주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

내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움쭉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런 거를 탁 털어버리세요

가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녹이는 데 이익이고 내 마음을, 내가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또 이익이고 나. 예를 들어서 이끌어 가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나 하나의 자기발전소에서 불 하나 켜면 내 아들이다 딸이다 뭐, 부부다 부모다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돼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치켜 올리거만 하면 그 쪽으로도 다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지요. 마음 편안하면 좌선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꼭 묶어 놓고 움쭉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거를 탁 털어버리세요. 마음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집일 갈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 이세를 튼튼하게 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을 갖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무언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라면 아마 자유인이 될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불행은 많은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괜히 힘들 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더 나은 선택과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잠도 오지 않고 날을 꼬박 새서 다음 날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는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죠. 좋고 나쁘다 비교를 하고 예쁘다 또 밍다 '아이고 저런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비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심역 마리의 세포 하나 하나가, 그 의식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뻐하든지 미워하든지 거기에 자기 중독을 일으킬 게 뭐 없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비교해서 나가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자꾸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앞에 놓고도 말합니다. 하얗도 파랗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깨뜨려 먹기 이전에 그거에 속지 않아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파랗다 하얗다 붉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 주인공에 뇌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꼬달리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고선 내가 그렇게 꼬달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면 수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요. 어떤 때는요, 피리에 피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또, 이게 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 나도 나로 인해서 피리에 피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떠한 쉽게 어려웠던데 말씀을 해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줄어들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아주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해?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모든 게 죽고 죽고 쫓고 쫓고 이리저리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선 나 혼자 그럴까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나 인제는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모두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자에 살던 그 자기가 말했고 행했고 한 것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뭐 붉다 검다,

모른다 안다 이런 그 모두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하든지 지켜보고 지켜 주고, 꿈지에 꿈지를 물고 밤새도록 잠 못 자기 마시고, 그럴 때는 '에이고,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곤 딱 막겨 놓고 그냥 '잠 좀 재워! 내가 있다면 잠 좀 재워, 좀.' 이라고 선 그냥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 네가 있는데 잠 좀 재워!' 이라고선 그냥 자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라의 국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아주 재세를 부리고 그냥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기에 왕림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고 그 국사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서 그렇게 풀밭에서 예를 쓰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또 "내가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들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잠자코 한참 있다가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니깐 깜깜한 겁니다. 문을 탁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갑하죠. 그러니까 "요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한 대 얻어결리고선 그냥 도주를 하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도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쯤조차도 공했으니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거죠.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모두 꼬달려서 잠 못 자고 병들고, 또 이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망했다고 해서,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낭패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모든 건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그 생각이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서는 모든 게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나 할 거를 꾸준히 해 나가세요.

우리가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도 아니 되고 발이 없어도 아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이게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 아래면 어떻게 위면 어떻게. 이게 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끝마쳐서 한번 뒤집어서 양면을 다, 무의 법의 법을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내뿜을 때는 크나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빛을 주는 거와 한가지입니다. 광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러한 거 하나를, 정말이지 모든 사람한테 밝고 밝은 광력의 그 길을 띄워 줄 때 그거는 어머어마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속아서 그냥 서로 으르렁으르렁하고 끝끝끝까지 살지 마시고요, 우리 다복하게 한 생을 즐겁게 이렇게 삽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엘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동양 정통 침술 전수

得醫道之傳子 階以好生爲心
不務聲名 不計貨利 不忍人識能
不論恭慢 惟知求人之命 愈人之病已已
醫學入口

최고의 동양 정통 침술 및 특수 침법을 전수코자 제한된 인원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1차 2010년 3월 5일 (금) 13:00
2차 2010년 3월 9일 (화) 13:00
- ◆모집인원 : 5명(집중교육)
- ◆교육기간 : 4주, 20시간
- ◆교 수 : 한국 최고의 침구학박사 직접강좌 및 최고의 교수진

※ 단 침술 및 특수침술 완전 정복

동양정통침술연구원 덕송 합장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동림빌딩 405호 02)713-7798 / 010-5250-779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2010학년도 1기생 모집

김동현 교수의 **사주명리학교실**

모 집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변화와 역(易)의 원리와 대자연(大自然)의 이치인 천(天), 인(人), 지(地) 사상을 통한 자아(自我)발전과 사주학을 통한 각자의 인연(因緣)의 법칙을 알고 모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주명리학을 비롯한 육화학, 관상학, 성명학, 궁합, 택일 등을 기초부터 실전 영입에 이르기까지 유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목과정입니다.

입학안내 3학기 과정 (명리+육화+관상+성명)

반	일시	개강일시
수요일		3월 10일 14:00 ~ 17:00 (3시간)

※수강료 : 30만원 (1학기 15주)
※전과정 초급부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 ◆자 격 : 성인남녀 / 학력제한 없음
- ◆입학정원 : 각반 30명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1매
- ◇ 접 수 처 :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 ※ 특 전 : 국민대학교 교육원 원장수료증
 - 명리 민간 자격증 수여 (신청자에 한함)
 - 문화센터, 각종 교육원 강사 지원
- ◆교 수 진 : 현 대학원 대학교 교육원 명리 책임교수
- ◆위 치 : 지하철4호선 김음역 3번출구 (역사환승 171번, 1117번)
 - 문 의 : 02)910-5193 ~ 6
 - 담당교수 : 017-704-8373

國民大學校
(평생교육원)
■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